

# '사전의 명문' 발돋움하는 「金星」

## 각종 辭典·事典類 개발에 총력전...시장 持分 넓혀가

### 기존 시장판도에 '충격'

우리나라 굴지의 대출판사로서 그동안 아동도서와 학습참고서 그리고 일반교양도서 출판에 주력해왔던 金星출판사(회장 金洛駿)가 최근들어 각종 사전 개발에 전력투구, 사전계의 판도를 바꿀 기세여서 출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사전시장은 기존 3대 메이커인 동아출판사·민중서림·시사영어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군림해 왔는데, 여기에 막강한 자금력과 판매조직망을 배경으로 한 金星출판사가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金星이 사전 개발에 착수하기는 84년께부터. 원래 사전출판은 축적된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제작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내갈 역량과 단단한 경영기반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게다가 기존 시장의 벽이 너무 높아 선불리 뛰어들기가 어려운 것이 사전출판이다.

金星은 '출판의 과학화'를 기치로 내걸고 사내의 사진식자 체제를 완전히 전산화함과 동시에 최첨단기체인 컴퓨터 편집기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로 '신원기획'이라는 사전 전문 편집회사를 설립, 사전편집의 엑스퍼트

들을 대폭 맞아들여 각종 사전 개발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 對譯사전 시리즈 20여종 내놓아

金星이 맨처음 선보인 사전은 「에이스 영한 중사전」「콘사이스 영하사전」과 「데스크 영한사전」 등 3종. 수록내용면에서나 제작체재면에서나 후발 메이커로서의 잇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이들 사전은 기존 사전업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에 자신을 얻은金星은 다양한 사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불과 4~5년 사이에 20여종의 각종 사전을 발매, 시장 세어를 넓혀나가고 있다.

金星의 사전 시리즈는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콘사이스 시리즈」 '뉴에이스 중사전 시리즈' '중고학습활용사전 시리즈' '대사전 시리즈'가 그것이다. 「콘사이스 시리즈」로는 영한, 국어, 일한, 漢韓사전 등 4종, '뉴에이스 중사전 시리즈'로는 영한, 국어, 일한, 한한 중사전과 「빅백 영영한사전」「로맨 영영사전」「그랜드 영한사전」 등 7종을 이미 내놓고 있다. 콘사이스류는 변형 B7판(16.7×9.7cm) 크기, 뉴에이스 계열은 변형 4.6판(21.6×14.6cm) 크기로 외형부터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중고학습활용사전 시리즈'로는 「중학영어입문활용사전」「중학수학공식활용사전」을 이미 내놓았고, 앞으로 「최신인명학습활용사전」「최신한자학습활용사전」「고교수학공식활용사전」 등이 연내에 발간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사전 시리즈'로 영한, 일한, 국어, 한한대사전을 연내에 내놓을 계획.

### 사전류의 질 높이는 데 기여

金星은 이들 외에도 각종 事典類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방대한 분량의 정보와 지식을 한권의 책에 담는' 事典작업의 첫 시도로 최근에 내놓은 것이 「文章百科대사전」과 「家庭醫學대사전」이다. 李御寧 편저의 「문장백과대사전」은 명언·명문을 비롯, 시·소설·격

언·속담·고사·일화 등을 다양하게 수록한 引用語사전이며, 「가정의학대사전」은 2천여종의 각종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과 치료법 등 최신 의학지식을 수록하고 있다. 둘다 탁상용으로 알맞게 변형국판(15.3×22.3cm) 크기에 2,200여면 안팎으로 체제를 통일했다.

金星은 앞으로 90년대까지는 세계 모든 언어권의 對譯사전을 연차적으로 간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가 하면, 전문분야별 事典도 계속 개발해 낼 계획이다.金星의 이같은 야심적 기획이 앞으로 시장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것인가도 주목거리이지만, 이런 사전출판 경쟁이 사전류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문출판사

## “사진의 위대함을 책으로 말한다”

### 사진예술책 전문으로 펴내는 「해뽀」



사진이론서라는 출판의 불모지를 일구고 있는 해뽀출판사의 윤주심, 심용섭 부부.

한장의 훌륭한 사진은 열마디의 말을 대신한다. 그러나 다소 역설적이게도 “과연 사진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글과 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도서출판 해뽀(종로구 관훈동 84-9, 731~2241)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윤주심, 심용섭 부부는 ‘영상’과 ‘글’의 기능과 조화를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진의 본질과 미학을 이야기하는 사진이론서를 출판한다는 것이, 우리의 출판현실에서는 “살얼음판에 뛰어드는 모험”이었다고 두사람은 입을 모아 말한다.

잡지사 기자 및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던 심용섭씨(40)와 사진기자였던 윤주심씨(36)가 ‘해뽀’이란 간판을 내걸고 출판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86년부터.

“사진은 여러 예술장르 중에서도 이론적 조명이 가장 낙후된 분야다. 신문지상에서는 영상도서시대가 왔다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진이론서 출판은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다”는 심용섭씨의 말에서, 어느 한 분야만을 고집스레 추구하는 전문출판인의 고독과 고충이 진하게 느껴진다.

비가 새는 광화문 구석의 다락방 사무실에서 첫 책을 출간한 이래, 지난 2년동안 「해뽀」이 내놓은 책들은 약 30여종. 「사진시대총서」와 「사진신서」라는 시리즈의 이름으로 각각 15종과 14종의 책들을 출간했는데, 사진론에 관한 고전적 작품으로 손꼽히는 수잔 손타그의 「사진이야기」에서부터 보도사진계의 신화적 존재인 로버트 카파의 2차대전 중군기 「카파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목록을 자랑하며 사진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에 관한 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질·종이·잉크·인쇄 등

을 선택하고 관리하는데도 남다른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들 부부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러나 상업출판사로서 수지타산을 맞추는데 필요한 일반독자의 구매력은 아직도 태부족한 것이 사실. 구체적인 판매부수를 묻는 질문에, 두 사람은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우리의 친구이며 독자다”라는 우회적인 대답으로 대신한다. 5명의 출판사 식구들이 편집과 영업의 양쪽을 감당하기에 어려움도 많지만, 현재의 도서유통구조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소규모 출판사들도 용기를 잃지 않고 뿔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이색’이나 ‘전문’이란 이름의 호기심어린 관심을 거부하는 두 사람을 통해, 좋은 책과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의 출판흐름 속에서 당당하게 자리잡으려는 젊은 출판인들의 패기를 엿볼 수 있었다.